

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도시디자인 연구를 위한
영국-네덜란드 도시재생 사례조사
보고서

2016. 10

정리자 : 이충훈, 임준홍

1. 개요

1. 목적

-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사례조사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
- 사례조사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방안 마련

2. 일정 및 대상지역

- 기 간 : ‘2016. 9. 22(목) ~ 9. 29(목) (7박 8일)
- 대 상 : 런던, 맨체스터, 암스텔담, 로테르담

3. 내용

- 런던 도시재생사례지역 및 도시디자인 조사
- 맨체스터의 문화를 접목한 원도심 활성화 사례지역 및 도시디자인 조사
- 암스텔담, 로테르담 도시재생 사례지역 및 도시디자인 조사

II. 출장보고 및 사례정리

1. 영국 런던

1) 도시개요

- 영국의 수도이며, 템스 강 양쪽 기슭에 위치한 항구 도시
- 2,000년이나 되는 고도로 영국의 정치·금융·공업·문화·교통의 중심지
- 런던은 세계의 업무 및 금융 중심지이자, 정치와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의 대표적 도시이며, 세계도시임



2) 도시의 특성

- 런던 대도시권은 빅토리아여왕 시기와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그 이후 도시성장에 따른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가 법제화되면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됨
- 런던은 EU내에서 가장 인구를 가진 도시이며, 도시내에는 300개 여개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도시임
- 특히, 런던은 뉴욕, 동경과 더불어 세계 3대 업무상업중심 도시로, City of London(the City는 유럽 최대의 금융 및 업무 중심지임
- 국제적 교통중심지임 런던에는 Heathrow공항을 포함한 5개의 국제공항과 하나의 대규모 항만이 위치함

2. 사례 지역

1) 런던 트루만 양조장의 변화와 브릭레인 문화예술 지구

① 도심재생의 개요

- 1600년대 중반이 지나며 런던 동쪽에 위치한 브릭 레인[Brick Lane]에 트루만 양조장이 들어왔으며, 18세기 중반에는 1000여명 이상이 일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그 후 약 200년 동안 이 양조업은 브릭 레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가장 지배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아갔음.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다른 양조사업으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서 1970년 이후까지 계속 쇠퇴하기 시작했음. 결국 1988년 트루만 양조장은 문을 닫고 영원히 역사 속에 남게 되었고, 그 후 문을 닫은 양조장은 그 모습으로 계속 브릭 레인에 방치됨.
- 한때는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스피탈즈 시장[Spitalfields Market]의 재개발 영향을 받아 재개발의 희망이 보이기도 했지만, 1991년부터 시작되는 경기침체에도 인해 그 가능성도 희박해지기 시작했음. 그런데, 1995년 제루프 파트너십[Ziloo Partnerships]이 이 지역을 싸게 구입하게 되면서 재개발의 희망이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의 모습으로 점차 발전되어 왔음.

② 주요 내용

- 1995년에 이 지역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제루프 파트너십의 재개발 방향은 트루만 양조장의 건물들, 창고들 그리고 부지를 최대한 유지 하면서 창조 산업을 위한 값싼 스튜디오, 이벤트 공간 그리고 일요일 상설마켓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음.
- 그리고, 처음 이 곳을 찾기 시작한 이주민들은 값싼 임대료가 필요한 예술가들로 특히 음악가와 디자이너 그룹들이 많았음. 또한, 그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충분한 크기의 작업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혼잡한 환경 속에 창조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어수선했던 이 장소는 음악가, 디자이너들뿐만 아니라 웹, 광고, 사진, 패션 등 다양한 종류의 예술가 집단의 창조적인 산업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의 독특한 창조적 환경을 만들게 되었음.



사진01: 구 트루만 양조장 및 브릭레인 전경



사진02: 브릭레인 내 설치미술작품

- 약 300년이라는 역사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축적 특색은 창조적 작업장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에 영감을 주었음. 예를 들면, 런던을 떠나 영국 안에 있는 건축학과 들의 합동 졸업전시, 작은 중소기업 부터 규모가 있는 기업체의 각종 이벤트 또는 행사장소로 대여가 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점점 발전해서 사회적으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알게 해주는 예술, 디자인 프로젝트가 이루어 졌음. 바로 지난 6년 동안 이루어 졌던 텐트 런던[Tent London]으로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과 관련된 프로젝트 임. 이것은 구 트루만 양조장을 중심으로 한 브릭 레인의 다양한 창조적 산업의 위상을 인정받고, 이곳이 런던 동쪽의 새로운 창조산업 중심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③ 정책 제안

- 예술가 집단의 중요성과 역할은 300년 이란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양조장이라는 산업적 분위기와 지역성이 지난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성을 보여주는 창조적 분위기로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말해주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버려진 빈건물, 빈공간을 처음부터 예술 문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재개발 하는 일반적인 방법하과의 큰 차이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자리 잡아온 이 예술 문화 공간은 주변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점상, 식당, 카페 그리고 클럽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했다는 것임.
- 이는 천안시를 포함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기간 5년이 끝나는 2017년 이후 도 지속가능하게 유지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고 볼 수 있음.

2) 런던 캠던 하이스트리트

① 도시재생 개요

- 런던 시내에서 북쪽에 있는 캠던타운을 연결해주는 길이며, 런던 북쪽 수로로 관통하는 리젠트 운하와 그랜드 유니온 운하가 연결되는 위치에 있음
이러한 위치적 장점을 바탕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하며, 특히, 1907년에 지하철 노던라인 캠던타운 역이 개통되면서 빠른속도로 쇼핑과 문화가 공존하는 길로 변화되었음.
- 특히, 런던의 캠던 하이스트리트에는 1960년대 미국 청년층의 기성 사회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회귀의 등을 주장한 Hippie 문화의 중심지가 됨.

② 주요 내용

- 캠던 하이스트리트의 문화예술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우선 메인 스트리트를 장악하는 히피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옷, 악세사리 등을 파는 상점가들, 이를 사기 위해 모여드는 개성넘치는 사람들(히피 및 펑크족), 그들이 들어가 신나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록[Rock], 재즈[Jazz]카페 등이 밀집됨.
- 그리고 한 블록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빈티지 마켓들[버크 스트리트 마켓, 스타이 블스 마켓, 캠던 카날 마켓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공간들이 예전 운하의 창고들에 자리 잡고 있음.
- 과거 운하를 중심으로 활발한 상업 활동이 있던 지역인 만큼 다양한 크기의 창고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였는데, 나중에는 그 역할을 못하고 유희공간으로 남게 됨. 그리고 현재는 이 공간들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 활발히 진행되는 공간들로 변경이 되었음.
- 이는 100년 넘게 유지되온 캠던 하이스트리트 역사성, 장소성, 문화적 요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었으며, 현재 미술, 조각, 디자인, 미디어, 의상, 수공예, 음악, 공연장 등 다양한 창조산업공간들이 들어와 있음. 특히 론 아라드 [Ron Arad]와 같은 산업디자인 거장의 사무실이 있음.



사진01: 캠던 하이스트리트 전경



사진02: 캠던 하이스트리트 주변 음반매장

③ 정책 제안

- 문화예술과 쇼핑이 공존하는 캠던 하이스트리트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온 젊음의 장소임.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로서 항상 수많은 유동인구가 존재하는 지역 이었고,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유희공간을 활용한 창조산업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음.
- 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2020년 이면 두 개의 큰 거점인 동남구청사와 천안역 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됨. 그때 생겨날 유동인구들의 유입을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키워드인 청년, 문화예술, 다문화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

3) 웹블리[Wembley] 브렌트구의 코트렐 하우스[Cottrell house]'

① 사례 개요

- 런던 예술가들도 스타작사 반열에 오르지 못하면, 런던 중심의 높은 물가에 밀려 남북쪽으로 이동. 그런 지역 중 북쪽에 웹블리[Wembley]는 15년 전만 해도 악명 높은 범죄지역이었음
- 2007년 유럽에서 가장 큰 웹블리 스타디움 콤플렉스(축구장 및 쇼핑센터)를 조성 하도 본격적인 지역 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진행하여 범죄율 1위 지역에서는 벗어났지만, 자치구인 브렌트구의 주요고민은 유색영국인의 통합이었음.
- 이러한 브렌트구의 주요 고민을 해결해 주는 주요 역할을 해주는 사회적기업 “민와일 스페이스[Meanwhile Space]” 는 2009년 설립되었으며 ‘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빈공간을 빌린 후 이를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유도.
- 현재 영국 내 17개 지역에서 2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한 곳이 바로

웹블리에서 35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자동차 전시장을 활용한 ‘코트렐 하우스

② 주요 내용

- ‘코트렐 하우스’ 는 민와일 스페이스에서 약 17개월 동안 빌려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예술가 3명이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 및 워크숍 공간을 구성하였음.
- 또한, 개인정액회원을 위한 칸막이 사무공간, 취약계층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식당 ‘소셜키친’ 등을 구성하여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음.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방문해서 놓여진 탁구대를 통해 스포츠 활동도 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 벽에 전시되거나 그려진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감상할 수 있음.
- 민와일 스페이스는 웹블리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영국 왕립 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 건축학과와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 커뮤니티 워크숍 ‘도 진행하고 있음.
- 여기서 발굴된 지역활성화 아이디어 중 리사이클링, 이동식 주차장 등에 대한 내용은 자치구 인 브렌트구에 지역개선 보고서로 제출됨.



사진01: 코트렐 하우스 전면



사진02: 코트렐 하우스 내부

③ 정책 제안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중 하나인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인식. 사회적기업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민간과 연결하여 지역커뮤니티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 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런던의 도시디자인 정책¹⁾

1) 개요

런던은 1980년대부터 경제재건의 주요한 수단으로 디자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재생사업과 거주자, 방문자, 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킬 도시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디자인이 부각됨

특히,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993년 밀레니엄 커미션을 설립하고, 산업화 시대를 주도한 영국 대표도시들의 쇠퇴를 극복하는 도시재생전략으로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런던의 리버플 지역과 카나리워프 지역을 들 수 있음.

또한 낙후된 템즈강 이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런던 밀레니엄프로젝트는 2000년 이후 런던시 활성화의 기초가 되었음. 세계 최대의 회전관람차로 사우스뱅크의 대표적 상징물로 정착된 런던아이(London Eye), 뱅크사이드의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한 테이트모던 (Tate Modern), 보행자 전용교로 낙후지역이었던 서더크 지역 재생의 성공사례인 밀레니엄 브리지(Millum Bridge) 등이 대표적인 사례지역임.



밀레니엄 브리지(Millum Bridge)



런던아이(London Eye)



테이트모던 (Tate Modern) 갤러리

1) (재)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도시 해외리포트 2012, [URBAN DESIGN & PUBLIC DESIGN\(uosarch.ac.kr\)](http://URBAN DESIGN & PUBLIC DESIGN(uosarch.ac.kr)) 참조 재 정리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 디자인 전문가 피터 비숍 등 전문가로 구성된 런던 시장 직속기관인 ‘디자인 포 런던(Design for London)’이 도시디자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런던시는 도시가 더욱 발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디자인이 중요한 틀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이 조직을 구성하였음.

‘디자인 포 런던(design for London)’은 런던시 전체의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개발 전 과정에 건축가와 도시디자이너가 참여하도록 장려하였으며, 심미성, 접근성, 친환경성, 다양한 인종과 문화유산 존중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음.²⁾



런던시는 런던시장 직속의 도시디자인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 전문가가 개입하는 방식의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자료:penoyreprasad.com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재개발에 관련해 주민들의 참여를 돕는 커뮤니티 센터기능 수행하고 있음.



2) 공공시설디자인의 핵심으로서 거리디자인

영국 해리티지재단, 영국을 위한 디자인 등 다양한 단체들은 런던의 큰 그림을 제시하였으며, 공공프로젝트는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Design Enabling, Design Review, 건물의 디자인퀄리티 향상과 관리도구, 디자인 퀄리티 평가(DQI)등을 통해 검증되어 추진되었음.³⁾

해리티지재단은 국가 및 지역 문화재 관리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거리와 연관된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리를 문화재 수준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거리계획, 관리, 조율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핵심역할을 맡고 있음⁴⁾

해리티지 재단의 ‘모두를 위한 거리(Street for All)’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쉽게 참조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서로서 거리포장은 거리의 특성 및 도시경관을

2) blog.naver.com(영국_ 창조도시 런던, 해크니) 인용

3) (재)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도시 해외리포트 2012

4) 김정후,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월간 국토, 2008

형성하는 핵심으로 전통적 거리포장 재료, 형태, 색상, 방식 및 구체적인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의 거리 구하기(Save Our Streets)’

시민들이 거주 지역의 공공시설물을 직접평가, 헤리티지재단에 알려 적절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참여제도임. 평가대상은 도로포장, 사인, 전화부스, 쓰레기통, 버스정류장 및 휴게소, 광고판, 가로등, 벤치, 화단 등의 11가지 공공시설물이 포함됨.

‘모두를 위한 거리(Street for All)’

런던의 거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으로서 영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2000년에 발간하였음. 런던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지구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수립하여 전체적인 런던시의 정체성 구축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에 의한 보행로 포장재 시공



공공공간의 복잡한 시설물 통합으로 공간의 쾌적성 향상



거리의 가로시설물에 의한 혼란



공간의 시설물 정리로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

* 자료 : www.publicRealm.info. Street Design for All

주요사업

런던 아이, 테이트 모던(Tate modern) 갤러리 등 재개발사업 추진과 낙후된 100개 지역에 도서관, 광장,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며, 행정기관 중

심의 안내표지 체계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안내표지 시스템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음.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 시설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의미하는 런던브릿지역과 초고층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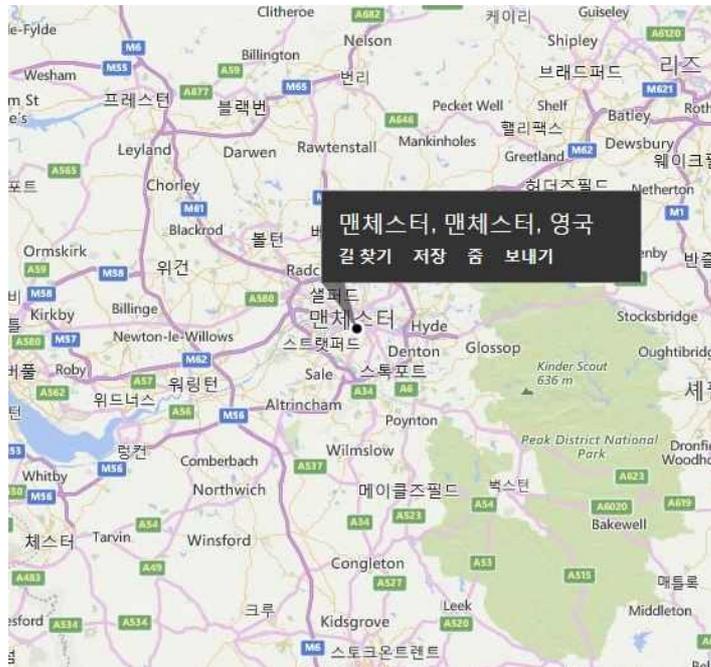
노팅힐지역의 특색있는 건축물 색채

3. 영국 맨체스터

1) 도시재생

(1) 일반사항

- 영국의 주요도시중 하나로, 란캐셔(Lancashire) 지역에 위치함
- 18세기 산업도시로 생겨났으며, 직물산업의 중심지였음



(2) 도시재생 배경

- 기술부족과 실업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
- 교육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존재
- 영국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높음

(3) 추진주체

- 지역 전략 파트너십 기구 (LSP: Local Strategic Partnership): 맨체스터 파트너십
- 공공, 민간, 시민사회 및 주민 등을 대표하는 지방, 지역, 국가 차원의 조직들이 합쳐져서 만든 위원회
- 맨체스터시와 커뮤니티 차원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역의 복지(well-being)를 촉진하기 위하여 맨체스터 커뮤니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목표
- 뉴이스트 맨체스터(NEM: New East Manchester Ltd)
- 뉴이스트 맨체스터는 1999년 설립된 도시재생회사의 하나임

- 2,000 헥타르에 이르는 맨체스터 도시의 동측지역의 재생을 담당
- 과거 산업의 중심지에서, 미래의 활기찬 지역이 되어 투자자, 기업가, 거주민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를 추구
- NEM은 맨체스터시의회(Manchester City Council), HCM(the Homes and Communities Agency), NWDA(the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와 이스트 맨체스터 커뮤니티(the communities of East Manchester)로 이루어진 파트너십을 구성

- 커뮤니티 뉴딜을 위한 기구42

- 커뮤니티 뉴딜정책은 실업문제, 빈곤 및 열악한 주거환경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질의 높이고 고용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주택 및 물리적 환경, 교육, 실업, 범죄, 보건 등이 핵심 분야로, 각 분야별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정책수립에 역점을 둠

(4) 주요 프로젝트

- 커뮤니티 전략 2006-2015 (Community Strategy 2006-2015)

- 지난 전략의 성공으로, 새로운 우선사항(priorities)이 등장
- 맨체스터 커뮤니티 전략은 3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세움
- 주도 서비스 기구, 커뮤니티 정부 간의 지역기반협약(Local Area Agreement)을 통하여 실행

- 근린재개발(Neighbourhood Renewal)

- 맨체스터의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장기 전략
-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고용의 새로운 방법과 서비스가 제공됨

- 지역개발계획(Local Development Plan)

- 주거, 도로, 교통시스템, 건축, 디자인을 총괄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제안하여 맨체스터 파트너십으로 하여금 연례 실행 전략과 전략적 재생을 가능하게 도와줌

(5) 주안점

- NEM(New East Manchester Ltd) 의 성과 (2000~2010)44

- 경제적 기반을 재건
- 일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도움
- 주택시장의 구조조정
- 물리적 환경개선
- 교육환경의 향상
- 맨체스터 파트너십의 성과

- 파트너십은 다양한 부문과의 협업을 통하여 차별성을 가짐
- 공공 서비스 공급과 LAA(Local Area Agreement)를 확실히 수행시키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했음
- 다양한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접근
 - 도시적 차원(city level): 커뮤니티 전략을 통하여 7가지 실행계획을 수립.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함
 - 구역적 차원(district level): 전략적 재생계획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경제·사회·환경적 개발을 이루고자함
 - 근린적 차원(neighbourhood level): 살고싶은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서비스와 거주지를 연계하는 계획을 함

2) 도시디자인 정책⁵⁾

Manchester City Center Masterplan UK, 1996-2002

(1) 디자인 프로세스

- 폭탄테러사건 이후 특별 전담기구 Manchester Millenium Ltd.가 설립
- 도로, 보행, 공공공간의 네트워크를 기본방침으로 Manchester City Council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의해 진행

(2) 지역적 특성

- 1996년 폭탄테러로 인해 주요도심부 약100만㎡의 파괴됨
- 대성당과 같은 역사적 건물이 남아있는 중세 역사지구의 특화 가능성 내포

(3) 기본전략

- 주요 상업지역 재활을 통한 도심 중심기능 강화
- 경제기반의 다양화
- 통합 교통 전략으로 이용성 증대와 접근성 강화
- Millennium quarter (지역의 문화유산, 역사적 건물 등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개발 유도)

(4) 공공영역의 계획

가로 - 구성방식 :

- New Cathedral Street/Exchange Street
- St. Ann 교회와 Exchange Square, 성당주변 역사지구를 연결하는 주요 가로

5) 황보민경,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3권 3호 통권7호



- Corporation Street
 - 버스, 택시, 보행자 모두 이용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
- 공원 - 구성방식 :
- City Park
 - 성당, Urbis, 문화센터, Cheetham 음악학교와 인접
 - 과거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던 상당의 정원까지 확장
 - 잔디, 조형물과 예술 설치물, 광범위한 식재구성



자료 : www.pinterest.com

광장 - 구성방식 :

- Exchang Square,1998, Martha Schwartz,INC
 - 차량이 점유하던 공간을 맨체스터시의 중심 retail district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 기하학 패턴을 사용하여 공간 인지력 높임
 - 시민들의 문화행사를 위해 쓰이도록 구성
 - 주변에 위치해 사람들 유입을 유도하는 상업, 문화시설



- Piccadilly Gardens 1998-2002, Thadao Ando
 - 맨체스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들로 둘러쌓임
 - 광장을 가로지르는 보행축과 수공간으로 구성
 - 강한 기하학 패턴과 나무를 이용하여 접근성 높임



자료 : www.pinterest.com

(5) 구도심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

- 구도심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은 도심재생을 위해 추구해야 할 요소인 접근성, 상징성, 연계성, 어메니티를 향상시켜 도심의 활력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적 요소를 통합하여 재구성하겠다는 의미로, 신도심 보다 구도심에 적합한 도심재생 수법임.
- 이는 기존의 전면 철거 혹은 새로운 건물 삽입 등으로만 진행되던 수법에서 기존 도시형태를 유지하며, 공공영역 디자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존의 공공영역을 재구성·재고찰 하여 쇠퇴한 도심공간의 새로운 정의와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임.
- 단순히 물리적 개선의 도심재생이 아닌 공간에 대한 지역민의 감각과 의식을 담아내는 공공영역에 대한 재정이라고 판단됨. 그러기 위해서 구도심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 방법은 단독적인 개선 과정이 아닌, 정해진 틀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함.

-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공간의 모습은 변화하고, 원래의 장소의 가치도 변하게 됨. 이러한 도시맥락의 변화와 흐름속에서 구도심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은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 역사성이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 다른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함.



자료 : <http://www.archdaily.com/346241/luchtsingel-zus-hofbogen-bv/>

3. 로테르담- 루크싱(Luchtsingel : 공중육교)건설⁶⁾

1) 일반사항

- 로테르담(Rotterdam)은 네덜란드 자위트홀란트 주에 있는 유럽 최대의 무역항 로테르담 항이 있는 도시임
- 인구는 약 60만명 (네덜란드 2위)이며,이 도시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최첨단 현대건축 실험의 장’ 또는 ‘현대건축의 경연장’ 으로 불림.
- 로테르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혁신적 건축을 통해 재건하여 왔고, 그 창조적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 로테르담의 도시전체에 흐르는 디자인은 네덜란드 신조형주의운동인 ‘데 스틸(de Stijl)’ 이 배경이 되고 있음. 이 곳 출신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혁신적 조형방식이 모더니즘의 기초적 형태언어가 되었으며, 이러한 조형방식은 원색의 강렬한 조합과 기하형태의 다양한 조합으로 다차원적으로 해석되어 로테르담 건축 전체에 반영되고 있음

2) 도시재생배경

- 네덜란드 로테르담 루크싱(Luchtsingel, 공중육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민의 도시재생 최초 사례이고, 또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임.
이 육교가 있는 지역은 원래변화가였으나 8차선 도로와 철길이 동시에 가로지

⁶⁾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도시재생 가능할까?(www.crowdri.org),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시민주도 도시재생, 네덜란드 로테르담 육교 건설 사례(acec808.blog.me) 자료 참조 재정리

르는 곳으로 보행이 금지되어 있어 도로 반대편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번거롭게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로테르담의 비효율적 도시공간은 심한 교통정체와 네덜란드 경제악화로 인한 빈 건물이 증가하면서 낙후지역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었음
-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로테르담시는 그지역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도로와 철길 위에 육교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은 30년이라는 오랜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으로 인식됨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사무소 ZUS가 로테르담 건축비엔날레에서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I Make Rotterdam)' 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로테르담 국제 건축비엔날레에서 그 시작을 알렸는데, 이 프로젝트의 중심은 단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도시재생이었음

3) 추진주체

-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I Make Rotterdam)'은 버려진 철로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탈바꿈한 뉴욕의 하이라인공원 사례에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음. 하이라인 공원은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시작되어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공원으로 주민주도 도시재생 상징적인 곳으로 알려짐.
-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프로젝트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도시재생을 중점으로 시민들이 직접 크라우드 펀딩 참여해 육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은 육교 상판의 나무에 이름,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펀딩을 유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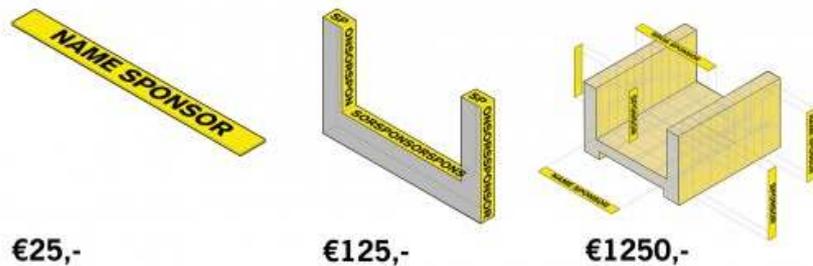
자료 : <http://www.archdaily.com/346241/luchtsingel-zus-hofbogen-bv/>

4) 추진내용

- ZUS는 육교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시민들로부터 최소 25유로(한화 약 3만 3천 원)에서부터 125유로(한화 약 16만 8천원), 최대 1,250유로(한화 약 168만원) 단위

로 모금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리를 구성하는 나무판자 하나하나마다 본인의 이름이나 친구, 가족, 연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 또는 광고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

- 이 프로젝트는 시작한지 3달 만에 목표액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천 4백만원)의 1/3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나무판자 1만 7천개로 구성된 길이 350미터, 너비 3.3미터의 육교를 건설할 수 있었음.



자료: 펀딩 규모에 따른 보상. <http://www.archdaily.com/346241/luchtsingel-zus-hofbogen-bv/>

- 이 프로젝트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첫째로 공공시설물 역시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음 전통적으로 도시개발,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설이 빠른 발전만을 목표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임
- 또한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 및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개발 및 건축이 대부분이었음. 하지만 로틀담의 사례는 정부가 할 수 없었던, 혹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지역 문제가 시민들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두번째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로틀담 육교 프로젝트는 단순히 참여자의 이름을 공공시설물에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임.
- 시민들이 거주하고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육교를 이웃과 함께 힘을 모아 건설함으로써 고질적 문제였던 교통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감까지 형성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음.
- 세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영역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책적,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켰음. 도시개발, 도시재생에 있어서 크라우드펀딩의 힘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

실히 확인할 수 있었음.

- 펀딩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공사에 착수해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시민과 정부가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나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임.
- 이렇게 시작된 시민참여는 도시재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루크싱 육교 건설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로테르담 시 정부로부터 4백만 달러(한화 약 40억 8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도시재생이라는 본래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육교를 잇는 건물의 옥상정원 설비, 호프레인(Hofplein)기차역 옥상 보수, 폼펜버그(Pompenburg) 공원을 가꾸는데 투자되고 있음.
- 현재 로테르담 육교는 로테르담에서 시민들이 가장 아끼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 크라우드 펀딩 도시재생은 도시를 개발의 공간에서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시민주도 도시재생 방법임. 현재 로테르담 육교 주변은 로테르담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육교를 잇는 건물 옥상정원 설비는 물론 호프레인(Hofplein)기차역 옥상 보수, 폼펜버그(Pompenburg)공원을 가꾸고 있음. 결국, 도시를 바꾸는 동력은 시민의 참여가 꼭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사례임.

참고문헌

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3>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5/2014091502401.html
3. <http://practica-practice.tumblr.com/post/67553366041/the-cottrell-house-unlocked-empty-space>
4. www.archdaily.com
5. www.crowdri.org/Article/Details/1195
6.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도시 해외리포트, 2012
7. 황보민경,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3권 3호 통권7호

- * 본 자료는 영국 등 해외출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사진, 국내외 연구자료 및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재정리 한 것임
- * 본 자료는 정식 출판물이 아닌 연구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참조자료이며, 혹시, 연구자가 미처 출처 등을 명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발견 즉시 보완할 예정임.
- * 이에, 본 글을 인용함에 주의해주고, 인용시 원출처를 확인해주기 바람